

못자리

3월



제 1722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1995년 **마닐라(필리핀)**에서 제10차 WYD가 개최되었어요.
특별히 마닐라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였어요.
대회 폐막 미사에는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라는
대회 주제처럼 교황님께서도 특별히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약자에 대한 사랑과 정의, 연대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오늘의 복음

3월 1일 사순 제2주일 <마태 17,1-9>

그 무렵 1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수녀님의 주일학교 시절



Sr.김 유리ানা

안녕하세요? 못자리 친구들!
태화동성당 김 유리ানা 수녀예요.
수녀님은 여러분보다 늦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당에 다녔어요.
그래서 일찍 주일학교에 다닌 여러분이 부러워요.
수녀님이 성당에 다니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은
학교 가는 길에 성당이 있어서,
등굣길에 "예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굣길에 "예수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드렸던 것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쩍 친해졌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예수님과 친해지는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우 리 들 이 야 기 ☆



★송현동 성당 4학년 김소리 글라라

나는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님에
 사랑하는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송현동 성당 4학년 김수빈 올리안나

오늘의 복음

3월 8일 사순 제3주일 <요한 4,5-15.19ㄴ-26.39ㄱ.40-42>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미션 up! up! up!

친구들 안녕? 방학은 잘 보냈나요?
 3월의 미션은 "성당에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오기"예요~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는 3월,
 친구들을 성당으로 인도한다면 더 좋은 시작을 맞이할 수 있겠죠?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사진을
 안동 교구청 사목국 메일(Sa3119@nate.com)로 보내주세요~

퍼즐

가로세로

지	대	림	회	개	내	귀	성	유	범
가	상	성	주	간	일	레	디	말	뱅
바	카	지	중	사	모	세	어	축	하
기	알	렐	루	야	당	사	성	유	일
도	미	호	산	나	과	본	수	태	시
삼	위	소	혜	주	선	포	트	난	나
일	슬	무	쟁	마	리	아	해	설	무
성	고	복	음	성	제	대	상	반	석
체	해	하	몽	병	삼	의	독	베	로
견	진	느	님	전	례	일	서	니	카

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은 주님 수난 ○○ 주일입니다.
2. 사순시기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하여,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주간은 ○○○입니다.
3.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4. 성 목요일 저녁에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때에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위는 ○○성사의 기원이 됩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가톨릭 전례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주님 만찬 미사로부터 부활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이 때를 ○○○라고 부릅니다.
6. 성 금요일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로서 미사를 드리지 않고 '주님 ○○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의 복음

3월 15일 사순 제4주일 <요한 9,1.6-9.13-17.34-38>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팡! 😍 팡! 해외탐방!

필리핀을 소개합니다!

1995년 WYD 개최지인 필리핀은 바다 위에 떠 있는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날씨는 늘 따뜻하고, 축제도 많고, 망고와 바나나 같은 과일도 많지요. 아시아 나라 중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살아 있는 나라이지요. 그럼 필리핀 말을 한번 따라 해 볼까요?

- ▶ 안녕하세요: Hello! / Kumusta? (쿠무스타)
- ▶ 감사합니다: Salamat (살라맛)
- ▶ 네 / 아니오: Oo / Hindi (오 / 힌디)
- ▶ 어른께 존경을 표현할 때: Po (뿌)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그림 찾기하세요.





3월 22일 사순 제5주일 <요한 11,3-7.17.20-27.33-45>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3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5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7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17 예수님께서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20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24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26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33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다. 34 예수님께서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37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복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님께서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40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44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Q1. 세계청년대회(WYD)가 무엇이며, 왜 대한민국에서 열리나요?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는 국제적 차원에서 많은 젊은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길 열망하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주도하에 탄생하게 됐어요.

매년 개별 교회에서 기념하는 ‘세계 젊은이의 날’을 3~4년 주기로 국제적 차원의 대회로 개최하는 것이 WYD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리스본 WYD 파견 미사에서 “유럽의 서쪽 끝인 리스본에서 아시아의 동쪽 끝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라고 발표하시며,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Q2. 세계청년대회(WYD)에 청년만 참여할 수 있나요?

세계청년대회(WYD)는 종교, 국적, 세대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지만, 본대회 참가 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본대회 참가 연령: 만 15세~39세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필요)

본대회 참가 신청: 26년 상반기 중 예상



오늘의 복음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마태 27,11-54>

그때에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12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18 ○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20 ○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군중이 대답하였다. ◎ "바라빠요." 22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 ○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25 ○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26 ○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오늘의 복음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30 ○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31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33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34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뿜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36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37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38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39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40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42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43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44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오늘의 복음

47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48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등뿔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50 ○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51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청소년 성인(聖人) 이야기

유대철 베드로 (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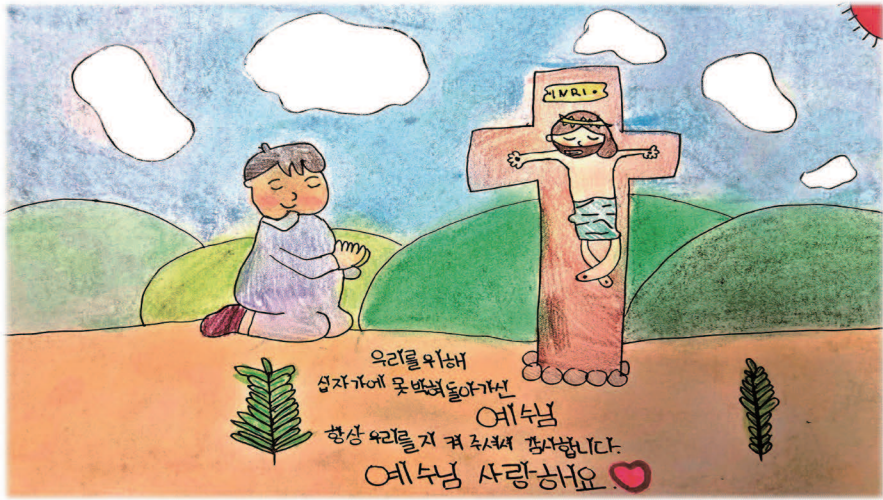


사진출처: 굿뉴스 성인(SAINT)

성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한국 103위 순교성인 중 가장 어린 성인이에요.(1826-1839년)

성인은 조선 땅에 선교사 들어올 수 있게 힘썼던 성 유진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었어요. 성인도 그해 7월 순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관청에 자수하여 수많은 고통을 꿋꿋하게 견뎌냈어요. 이때 성인의 나이는 14살이었답니다. 친구들도 성인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본받으며 기도드리기로 해요.

우 리 들 이 야 기 ★



★목성동 성당 4학년 이해원 알비나

"엘리엘리 레마 사박타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속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아플뻔했는데 믿어주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일 슬프셨을 것 같다.



★목성동 성당 6학년 권정안 정혜 엘리사벳

주간 퀴즈

<1주간> : 사순 제2주일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시며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제자들일까요?
 - ① 안드레아, 마태오, 바르톨로메오
 - ② 베드로, 베로니카, 요한
 - ③ 베드로, 야고보, 요한
 - ④ 마르타, 마리아, 수산나
2.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모하셨을 때, 구름 속에서 들려 온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

<2주간> : 사순 제3주일

1.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우물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요셉의 우물
 - ② 야곱의 우물
 - ③ 이사악의 우물
 - ④ 다윗의 우물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진실한 예배자들이 ()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 바로 그 때다.



당첨자

1월 11일 정답자

남성동 구나운 박서진



알림판

◆ 4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4월 5일 : 의 성 성당
- 4월 26일 : 하망동 성당

(※ 원고는 3월 3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